## 다시 푸는 경서

### 달마 혈맥론(血脈論) ⑯ · 끝

故經云
고경운
惡業卽得苦報
악업즉득고보
善業有善報
선업유선보
不但嗔墮地獄
부단진타지옥
喜卽生天
희즉생천
若知嗔喜性空
약지진희성공
但不執 卽業脫
단불집 즉업탈
若不見性
약불견성
講經決無憑
강경결무빙
說亦無盡
설역무진
略標邪正如是
약표사정여시
不及一一也
불급일일야

若欲求佛 但求心
약욕구불 단구심
只這 心心心是佛
지저 심심심시불
我本求心心自持
아본구심심자지
求心不得待心知
구심부득대심지
佛性不從心外得
불성부종심외득
心生便是罪生時
심생변시죄생고

## 너그러울 땐 법계를 덮지만

## 좁아지면 바늘 끝도 용납 않네

경에 말하기를 '악업은 곧 괴로운 과보를 받고 선업은 곧 좋은 과보를 받는다' 하였으니, 성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만약 성내고 기뻐함의 성품이 공(空)함을 알아서 집착함이 없다면 바로 업(業)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경전을 강론한다 해도 결코 아무런 보탬이 없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기에 간략히 옮고 그름을 이처럼 표방했으나 자세히는 다 미치지 못했다.

頌曰(송왈)

心心心難可尋
심심심난가득
覓時偏法界
관시변법계
窄也不用鍼
착야불용침
我本求心不求佛
아본구심불구불
了知三界空無物
요지삼계공무물

마음 마음 하는 그 마음 찾을 길 어려워라. 너그러울 땐 법계를 덮지만 좁아지면 바늘 끝도 용납치 않네.

나는 본래 구하는 마음으로 부처를 찾은 적 없나니, 삼계(三界)가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아노라.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만을 찾아라. 마음 마음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로다. 내가 본래 찾는 마음도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나니, 찾는 마음으로 마음 알기를 바라지 말라.

불성(佛性)은 마음 밖에서 얻는 것 아니니, 마음이 일어나는 그 때가 바로 죄가 생기는 때니라."

偈曰(게왈)

吾本來此土
오본래차토
傳法救迷情
전법구미정
一花開五葉
일화개오엽
結果自然成
결과자연성

내가 중국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지려 함이네.
한 송이 꽃에 다섯 개의 잎이 달렸으니
그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역자 주 : 이번 호로 달마의 〈혈맥론〉은 끝을 맺고, 다음 호부터는 달마의 〈관심론〉이 연재됩니다.

## 큰 스님과의 대화

# 설산스님

정토사 주지

고려시대의 스님 나옹화상은 염불수행을 하면 법신불이 된다고 설파했다. "아미타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철저히 마음으로 잘 챙겨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일체 망념이 없어진 무념처에 이르면, 이 몸이 법신불 되어 금색광명을 발하리라."

서울 광창동 삼각산 자락 한켠의 작은 법당 정토사.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가 골짜기 아래 흘러내린다. 30여년 전 이곳에 정토사를 세우고 염불정토를 발원해 온 설산스님. 내년 9월이면 만일염불을 회향한다. 설산스님은 "염불을 하면 내가 곧 부처님이며, 미타세계에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산스님에게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염불수행의 방법과 그 공덕은 무엇인지, 염불수행의 길을 여쭈었다.

# "언제 어디서나 나무아미타불"

· 1919년 경북 문경 生
· 15세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출가
· 건봉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10하안거 성만
·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 졸업
· 조계종 8대 종회의원과 도선사 실달학원 원장 역임
· 현재 정토사 주지, 배달문화선양회와 설산장학회 회장
· 저서로 〈명산고찰따라〉 〈뚜껑없는 조선역사책〉이 있음

—스님께서는 30여년 전부터 염불수행을 해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염불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염불문으로 들어선 연유를 듣고 싶습니다.

▲청담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종회의원을 하다 그만 두고 도선사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식문에 정토발원이라는 큰 뜻이 있는데도 염불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녁 송주(誦呪)를 하며 "어김없이 안양국에 태어나서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옵고, 미진세계 국토에 몸을 나투어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네지이다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遍塵刹 願我廣度諸衆生)" 하고 발원합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건봉사가 염불왕생극락 발원의 중심도량이니 건봉사에서 아미타불 염불을 하려 했으나,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요.

30여년 전 삼각산 자락에 정토사를 세워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염불을 시작했지요. 내년 9월이면 만일염불(萬日念佛)을 회향합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부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며 염불을 강조하시는데, 여러 수행법 중에 염불을 권유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발원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수행에는 참선도 있고 간경도 있는데, 성불하겠다는 뜻이 있지요 성불하기 위해서는 여러 겁을 닦아야 합니다. 시일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염불을 아주 쉽습니다. 경전을 보기 위해서는 글 공부를 해야 하고.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만 부르면 돼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시장에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아미타부처님은 10만억 국토 밖에서 항상 설법을 하고 계시니,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면 항상 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 극락세계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들이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깊이 새겨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를 두고 한결같이 아미타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외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사람 앞에 나투시느니라."

—기도와 수행은 다른 것인가요?

▲기도는 부처님과 보살에 의존하는 것이고, 수행은 자신이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되 염불이나 좌선을 꼭 해야 합니다.

부처님 믿는 데 종파도 많고 수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요즘의 불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도 하지만 소원을 들어달라는 소리만 해요. 아들 낳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러나 사바세계에는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몸뚱이는 늙어가고, 이것이 중생의 세계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법력으로 기도한 만큼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까먹으면 또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생사를 초월해서 고해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압축해놓은 반야심경에 보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는 것이 부처님 법인데, 그걸 체득해야지요.

〈초심(初心)〉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三日修心 千載寶
百年貪物 一朝塵

사흘을 닦으면 천년의 보배를 쌓고, 백년 탐한 물건은 하루 아침의 티끌이라는 뜻이지요. 복만 구하지 말고 수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천불, 만불 조성해놓고 빌고 있어요. 탐내지 말고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서 영생토록 인류평화를 건설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은 따르지 않고 내가 조성한 부처님께 절하면 복을 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수행을 해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의 상황에서도 연연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 고해(苦海)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불타는 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시도 편안할 겨를이 없지요.

그러나 나는 사바세계라고 부르지 않고 미타세계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이 나와 같이 합니다. 내가 곧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미타세계에 소요(逍遙)하는 것이지요.

—참선이 최고이며, 염불은 하근기의 수행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참선을 한다, 무엇을 한다며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불이 참선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은 뽐내려는 소치이지, 그런 소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불은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염불을 해야 반드시 성불한다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염불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듯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도 염불이요, 밥을 메도 염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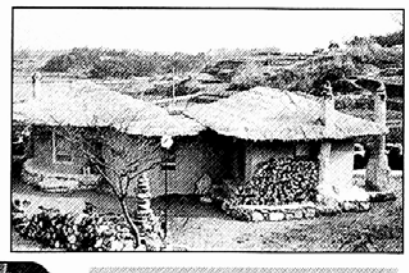
—염불의 방법이 있을텐데요. 혼자 할 때와 여럿이 할 때의 방법이 다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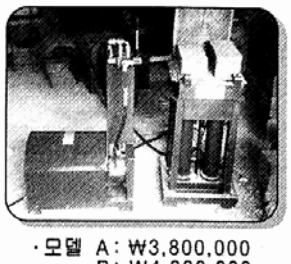
▲애초의 염불은 부처님의 원만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을 마음속에 상념하여 자신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관상염불(觀想念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염(念), 부처 불(佛),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도 염불입니다. 그런데 말법천년에는 아미타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으니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비가 내리고 있는니 비를 맞지 말고 우산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나무아미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깔롱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 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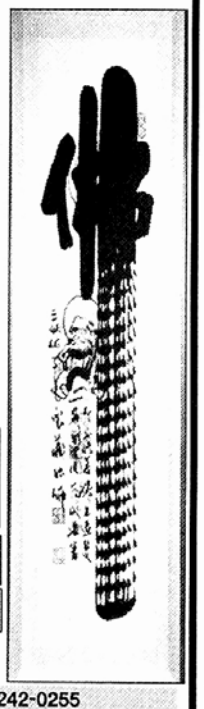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과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2242-0255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문의
〇二-七三七-八八一